

#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이주연\*\* · 김동민\*\*\* (중앙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가 개발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월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학술지 논문 54편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추후 진행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인 현황은 2010년 이전에는 연구가 저조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다른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탐구한 연구(90.7%)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 특성 요인,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학업 및 진로 요인,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복합 요인 및 기타 요인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내적 특성 요인(44.6%)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방법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 및 제한점,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학생,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동향,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약하고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전 생애 동안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한나리, 이동귀, 2010).

그중에서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한정된 대인관계를 벗어나는 시기이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에 기반을 둔 친구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frever1317@naver.com](mailto:frever1317@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minkim@cau.ac.kr](mailto:dminkim@cau.ac.kr)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대학생 시기는 전공 학과의 동기나 선후배를 비롯하여 동아리, 학술모임 등과 같이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권석만, 2004).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 외로움, 분노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서정연, 2016). 해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우울감 같은 정신 병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Robert, Kassel & Gotlib, 1995). 반면 대학생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느끼는 때라고 대답했다(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이처럼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의 중요성이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Spitzberg & Cupach, 1989; 조운주, 박장희, 2006).

그러나 현대 사회 속 우리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상담 내용 현황 통계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46.6%), 학업 및 진로 문제(22.8%), 일탈 및 비행 문제(19.3%), 성격 문제(11.3%) 순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대인관계로 인해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인관계가 대학생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대인적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대인적 유능성의 하위 개념으로 비언어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제시하였다(최광선, 1995). 그 후에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나리, 이동귀(2010)가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타당화 한 이후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KCI에 등재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연구 54편 중에 49편(90.7%)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은 하나의 변인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 내적 변인과 가족 분화 같은 사회적 변인, 그리고 생활 및 배경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변인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선영, 양수진, 2019). 변인 간 관계 연구 중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족 관계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이지선, 정혜정, 2016). 첫째, 개인 내적인 변인 중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모두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Eisenberg, 2014)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 표현 및 조절, 공감, 자동적 사고, 자존감, 자아개념 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 2016; 한나리, 이동귀, 2010). 둘째, 부모-자녀 관계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만족스러운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자각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되어 왔다(Feeny & Noller, 1990).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가정

내적 환경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애착(박원주, 2016), 가족 분화(이창배, 전혜성, 2015)등의 변인들을 다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관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다. 그 중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은 변인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성격적 특성은 변화에 저항적이지만 대처 유연성 같은 변인들은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기술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윤부경, 배성훈,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을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상담 현장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다수의 선행 연구(김종임, 2020; 민희정, 2019; 구현주, 문혁준; 2019, 설보경, 김희경; 2018)에서 한정된 표본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별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송주석, 박기산, 김예인, 최희락, 신성만, 2016).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한 후속 연구로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조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다룬 연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향후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한 제언의 내용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인

간은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한다(강수진, 최영희, 2011). 이러한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유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Spitzberg & Cupach, 1989).

대인관계 유능성은 Thorndike(1920)가 사회지능을 연구하면서 시작했으며, 자신 및 타인의 내적인 동기나 상태, 행동을 적절하게 지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 사회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이라는 단어는 Spitzberg 와 Cupach(1989)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인관계 유능성이라고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효과성과 적절성이라고 하였는데, 효과성이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던 것을 얻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고 적절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칙이나 기대를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1988)는 대인관계 능력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을 주장하는 능력,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능력,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대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등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만남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둘째,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 주장하는 능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불쾌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섯째, 대인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개방하여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Erikson(1963)은 성인기 초기에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을 기초로 사회적인 친밀감을 획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밀감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데, 성인기 초기에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형성하게 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Erikson, 1963). 그러므로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발달 단계상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생 시기를 인간관계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하면서 대입 준비로 인해 제한된 대인관계를 맺기 쉬운 청소년 시기와는 달리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구현주, 문혁준, 2019). 또한 대학생 시

기에 형성한 바람직한 대인관계 경험이 합리적인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구현주, 문혁준, 2019).

한나리, 이동귀(2010)는 국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역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을 주장하는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 대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1988)이 제시한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영역과 다른 점은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과 자신을 개방하는 능력이 수정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뿐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도 그 사람 자체를 단정 지어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개방하는 능력의 의미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미가 수정되었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선정된 논문은 모두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 키워드는 “대학생” 과 “대인관계 유능성”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KCI에 등재된 논문 중에서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뒤 논문명과 초록을 확인하였다. 초록에서 연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아닌 공감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유사 개념을 다룬 연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개념을 다룬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중에서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54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기준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생 상담 분야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동향 및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선행 동향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담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물에 사용된 분석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특정 주제를 분석하였으므로 상담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분석한 연구물에 사용된 분석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였다. 최근 선행 논문들에 사용된 분석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은하(2013)는 상담학에서 이루어진 공감 연구에 대한 개관 연구를 하면서, 공감 연구를 대상

으로 분류 범주를 크게 논문의 기초사항(출판연도, 제목),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석미정(2016)은 자녀의 부모화에 관한 국내 연구를 개관하면서, 분류 범주로 발행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자료분석방법, 관련변인, 측정도구)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 한 편 고예주(2019)는 국내에서 경험회피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동향연구를 하였는데, 기초사항(출판연도, 논문제목,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연구변인 등 5가지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은 홍지선과 김수임(2017) 사용된 분석틀에 기초하였다. 홍지선과 김수임(2017)은 국내 수치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분류 기준으로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방법, 측정도구, 변인 간 관계분석 등 7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처럼 선행논문들에서 상담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동향연구를 할 때, 공통적으로 기초사항으로서 연구대상 논문의 출판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변인을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국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를 논문의 출판연도,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주제, 연구방법, 측정도구, 연구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류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사항으로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일반 동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출판연도를 구분하였고, 연구 주제의 분류기준은 고예주(2019), 홍지선과 김수임(2017)의 분류범주를 근거로 변인 간 관계 연구, 진단척도 개발 연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연구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인 간 관계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이며 진단 척도 개발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이다. 그리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연구는 상담 혹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에 의해 대인관계 유능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질적 연구로 총 3가지 분류기준으로 정의하였다(홍지선, 김수임, 2017).

둘째, 어떤 측정 도구로 측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별로 논문을 분류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진단 도구들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유목화 하였다.

셋째,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유목화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홍지선과 김수임(2017), 고예주(2019), 홍주희(2020)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개인 내적 특성 요인,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학업 및 진로 관련 요인, 복합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총 5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넷째, 분석 대상 논문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연구를 제안하고 있는지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대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 유목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인의 다양화, 연구방법의 변화, 측정 도구의 검증 및 개발, 표본의 일반화, 정책적 개입 6개로 작성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

#### 1) 연구방법 및 주제별 논문 현황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54개의 연구가 모두 2010년 이후에 등재된 것으로서, 년도별 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안에 진행된 연구가 2016년에 4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9건, 2019년에 18건, 2020년에 7건 등 총 44건이다. 이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근래에 들어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발행연도별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논문 수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편수	1	4	1	1	2	1	4	6	9	18	7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연구의 방법과 주제를 조사한 결과, 양적연구가 52편, 양적·질적 혼합연구가 2편으로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없었다.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 검증하는 변인 간 관계 연구가 49건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연구가 4건, 측정 도구 개발 연구가 1건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연구는 교육기부를 통한 실천적 지식 전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상규, 2018), 인간관계론 교과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주석진, 2012),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손혜진, 2016), 집단 상담이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은이, 2011) 였으며, 측정 도구 개발 연구 1건은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타당화 하기 위한 한나리, 이동귀(2010)의 연구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주제별 논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방법 및 주제별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논문 현황

	구분	횟수	비율
연구방법	양적연구	52	96.3%
	양적·질적 혼합 연구	2	3.7%
	질적 연구	-	-
	전체	54	100.0%
연구주제	변인 간 관계 연구	49	90.7%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4	7.4%
	성과 연구	1	1.9%
	측정 도구 개발 연구	1	1.9%
	전체	54	100.0%

## 2. 측정도구별 논문 현황

### 1)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도구의 발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맺음의 현주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진단 도구들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Buhrmester et al.(198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을 평가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5가지 영역(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을 주장하는 능력,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능력,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대인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 8 문제씩, 총 40개 문항에 대해 얼마나 문항 속의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지 5점 Likert척도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점은 “나는 이것을 잘 못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고, 5점은 “나는 이것을 매우 잘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다룰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나리, 이동귀, 2010). Buhrmester et al.(1988)은 3개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방식의 척도 ICQ를 개발하고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척도는 김창대, 김수임(1999)이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하여 사용한 이래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집합주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 ICQ의 하위영역을 재구성하여 K-ICQ 라고 명명하였다. 서양과 달리 한국 문화권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원만하게 지내는 것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에 대해 자신이 부여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ICQ의 하위영역을 수정하였다.



〈표 3〉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을 위한 진단 도구

구분	측정대상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ICQ	대학생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8	.70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을 주장하는 능력	8	.76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능력	8	.64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8	.73
		대인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8	.67
K-ICQ	대학생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8	.88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 주장하는 능력	7	.83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7	.81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	6	.73
		대인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3	.63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배성만, 2015)	20~40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4	.80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에 대해 의사표현 하는 능력	4	.67
	성인 남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5	.79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	3	.67

이 척도는 5가지 하위능력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첫째,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는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문항이다. 둘째,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 주장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자신의 불쾌한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문항이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비난하지 않고 친구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문항이다. 넷째,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부끄럽거나 약한 모습에 대해 얘기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문항이다. 다섯째, 대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상대방과 큰 의견 불일치를 불러일으킬 말로 예상될 때 말을 삼가는 것, 친구와 싸우더라도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문항이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CQ)와 다른 점은 5가지 요인 중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에 관한 요인을 강화하였고,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에 대해 중요성을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은 새롭게 제시하고, ICQ 원척도에서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던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을 적절하게 자신을 개방하는 능력으로 수정하여 3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배성만, 2015).

한 편, 배성만(2015)은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개발한 K-ICQ가 182명이라는 적은 수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접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는 것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기존의 척도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20~40대 한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4가지 요인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불쾌감에 대해 의사표현 하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배성만, 2015). 첫째,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는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문항이다. 둘째,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 주장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자신의 불쾌한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문항이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기분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문항이다. 넷째, 자기를 개방하는 능력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부끄럽거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문항이다.

## 2) 측정도구별 논문 현황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에 사용된 진단 척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4건의 연구 중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K-ICQ가 44건(81.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ICQ가 8건(14.8%)으로 사용되었고 그 뒤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배성만, 2015)가 2건(3.7%)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 3.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전체 분석 논문 54건 중에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연구 4편과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 1편을 제외하고 총 49건이다. 분석 대상이 된 논문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중에서 어떤 변인으로 연구되었는지 나타낸 결과가 <표 5>와 같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이 29편(5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독립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이 10편(24.5%)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매개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이 8편(16.3%)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 사용 현황

연번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	횟수	비율
1	K-ICQ	44	81.5%
2	ICQ	8	14.8%
3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배성만, 2015)	2	3.7%
	전체	54	100.0%

〈표 5〉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 현황

연구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전체
논문수 (비율)	12 (24.5%)	29 (59.2%)	8 (16.3%)	49 (100%)

### 1) 개인 내적 특성 요인

이처럼 다수의 연구자들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인관계 유능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요인은 개인 내적 특성 요인, 가족 및 사회 관계 요인, 학업 및 진로관련 요인, 태도 및 행동관련 요인, 복합 및 기타 요인 등 5가지로 유목화하여 나눌 수 있다. 개인적 특성 및 적응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다른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최은정, 김유현, 김청송, 2020).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최은정, 김유현, 김청송, 2020; 박선영, 양수진, 2019; 윤아름, 장현아, 2017), 정서적 특성(이현진, 박경미, 문혜경, 서가원, 2019; 양지인, 이호현, 2019; 김여진, 류석진, 조현주, 2019; 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 2016; 김향선, 이영순, 2011), 인지적 특성(김종임, 2020; 여미정, 김완일, 2020; 배미정, 조한익, 2014) 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들을 통해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을 검증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검증하였다. 개인적 특성 및 적응과 관련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증명한 연구들의 목록은 〈표 6〉과 같다. 한 건의 연구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인을 횟수로 세어 개별 주제를 분류 유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을 환경에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변인과 환경에 부적응적인 특성을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에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변인이 16회(76.2%)로, 대부분의 연구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적응적인 개인 내적 특성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인 내적 특성 요인 분석 결과

적응적 특성	횟수(비율)	부적응적 특성	횟수(비율)
공감능력	2	우울	1
정서인식명확성	2	내현적 자기애	1
낙관성	1	거부 민감성	2
정서표현	1	경계선 성격	1
정서조절	1		
회복탄력성	1		
감사성향	2		
신체적 자아개념	1		
자기수용	1		
인지적 유연성	1		
자아분화	1		
행복감	1		
심리적 안녕	1		
	16(76.2%)		5(23.8%)

한 편, 개인 내적 특성 및 적응과 관련한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들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인관계와 자신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대인관계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대인관계의 유능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다(윤부경, 배성훈, 2020). 즉,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대인관계 능력의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 사용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 기제로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할 가능성과 불성실한 응답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허토실, 최수미, 2017). 더불어 자기 보고식 척도를 활용한 양적연구로는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만을 검증할 수 있고, 각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배경 등에 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양지인, 이호현, 2019). 따라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은 가족 관계 요인 5회(77.8%), 가족 관계 외의 사회관계가 2회(22.2%)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인관계 유능성의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가족 관계	횟수(비율)	가족 관계 외의 사회 관계	횟수(비율)
부모-자녀의사소통	1	개별성-관계성	1
부모화 돌봄	1	사회적 지지	1
애착유형	3		
분리개별화	1		
부모-자녀관계	1		
7회(77.8%)		2회(22.2%)	

### 3) 학업 및 진로 요인

학업 및 진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터넷 중독, 진로 정체감, 학업 스트레스 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변은경, 김미영, 2020; 손미라, 2018; 윤은영, 이지연, 2016). 분류유목에 따라 요인을 분류한 결과가 〈표 8〉과 같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인과 관계는 검증되지 않았다(변은경, 김미영, 2020).

### 4)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관련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수용적 태도 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변은경, 김미영, 2020; 손미라, 2018; 윤은영, 이지연, 2016). 분류유목에 따라 요인을 분류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표 9〉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2건 이루어 졌다. 이혜은과 문학룡(2019)는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손미라(2018)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면서, 여학생인 경우에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부족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8〉 대인관계 유능성의 학업 및 진로요인

변인명	횟수
대학생활적응	1
임상실습적응	1
현장실습적응	1
과목에 대한 흥미도	1
전공 만족도	1
진로 정체감	1

변인명	횟수
학업스트레스	1
전체	7

〈표 9〉 대인관계 유능성의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변인명	횟수
스마트폰 중독	2
인터넷 중독	1
결혼관	1
외모만족도	1
중용적 태도	1
전체	6

이처럼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으면 대학생의 태도 및 행동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관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성별,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얼마나 고려하였는가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유희정(2019) 역시 대학생의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성은 있지만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대인관계 유능성이라는 변인 자체가 성별, 학력, 연령 및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특수성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 5) 복합 요인 및 기타 요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복합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회, 정서·성격적 진로문제가 1회 실행되었다.

그 외에는 인공지능의식 같은 신체 요인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회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분류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자들이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를 위해 어떤 형태로 후속 연구의 제언하고 있는지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총 89개이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방법의 변화, 연구 방법의 변화, 연구 변인의 다양화, 측정 도구의 타당화 및 개발, 연구 대상의 확대, 정책적 개입 6개의 분류 유목을 작성하여 분류하였다.

〈표 10〉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비교

연번	분류 유목	횟수	비율
1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4	15.7%
2	연구방법의 변화	21	23.6%
3	연구변인의 다양화	9	10.1%
4	측정도구의 타당화 및 개발	5	5.6%
5	연구 대상의 확대	37	41.6%
6	정책적 개입	3	3.4%
	전체	89	100.0%

〈표 10〉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확대에 대한 제언이 37회(41.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의 변화에 대한 제언이 21회(23.6%),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이 14회(15.7%)로 나타났다. 그 뒤로 연구 변인의 다양화에 대한 제언이 9회(10.1%), 측정도구의 타당화 및 개발에 대한 제언이 5회(5.6%), 정책적 개입에 대한 제언이 3회(3.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제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표본을 편의 표집한 것에 대해 한계점을 제시하며 후속 연구에서 일반화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하기 쉽다는 점(배미정, 조한익, 2014; 허토실, 최수미, 2017), 맥락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김여진, 류석진, 조현주, 2019) 등을 들어 후속 연구로 질적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은 대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표 11〉과 같다. 넷째,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또 다른 개인 내적 특성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에 대해서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최은정, 김유현, 김청송, 2020).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별이나 전공 등을 변인으로 추가할 것을 제언하였다(유희정, 2019). 다섯째,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할 표준화 된 연구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화에 대한 검증 연구가 비교적 적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이지선, 정혜정, 2016). 여섯째, 연구자들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양 과목을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하였다(양지인, 이호현, 2019; 오지혜, 윤혜미, 2017).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이지선, 정혜정, 2016).

〈표 11〉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세부 내용	등재년도
대처유연성을 높이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20
정서명확성 및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2020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훈련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개인별 맞춤 상담 프로그램	2020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	2019
대인관계유능성과 극복력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19
반복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2019
중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치료개입 프로그램	2019
공감지수와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프로그램	2019
대인관계 유능성 중 개방영역의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2018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 동기 강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2018
성인애착유형별로 세분화 된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2017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담 프로그램	2016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2016
가족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2015

## V.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KCI에 등재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다룬 54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동향,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내적 특성 요인,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학업 및 진로 요인,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복합 요인 및 기타 요인),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제언을 비교분석 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보고된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 관계를 증명한 연구,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적 접근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진단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분석 대상이 된 전체 연구 54건 중 49건(90.7%)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 도구는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개발한 K-ICQ이다.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를 사용한 총 54개의 연구 중 44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의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는 ICQ가 8회,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배성만, 2015)가 2회로



K-ICQ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을 5가지 분류유목인 개인 내적 특성 요인, 가족 및 사회관계 요인, 학업 및 진로 관련 요인, 태도 및 행동 관련 요인, 복합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들을 대인관계 유능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개인 내적 특성 요인(21회)이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개인 내적 특성 요인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적응적인 개인 내적 특성의 부족이 사회적 기능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강수진, 최영희, 2011)와 일치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에 대해 환경 적응적인 요인과 환경에 부적응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환경 적응적인 요인을 더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 높은 비율을 보인 요인은 가족 및 사회 관계 요인(9회)이다.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화 돌봄, 분리 개별화, 성인 애착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 요인에 대해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비교한 결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방법의 변화, 측정 도구의 타당화 및 개발, 연구 대상의 확대 그리고 정책적 개입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분류 유목에 해당하는 제언을 하였다. 그중에서 연구 대상의 확대에 대한 제언(37회)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연구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21회)고 지적한 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 및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제언, 연구 변인의 다양화에 관한 제언, 측정 도구의 타당화 및 개발에 관한 제언 그리고 정책적 개입에 관한 제언이 뒤를 이었다.

## 2. 논의

지금까지 총 54편의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량화된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측정에 면담이나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를 포함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이 잘 반영된 국내 척도가 없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선행 연구들은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나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제 임상적 개입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증진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반복적 훈련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면 대학 신입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뿐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간관계 관련 교양 수업이나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면 다수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같은 긍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적 개입을 할 때에는 개인 내적 특성 중에서도 환경 적응적인 특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윤부경, 배성훈, 2020; 여미정, 김완일, 2020; 윤미혜, 지민경, 신민우, 2020; 제남주, 박미라, 화정석, 2019; 박효진, 변은경, 양현주, 2019; 이현진, 박경미, 문혜경, 서가원, 2019).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 내적 특성 중 환경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험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동일 검사지를 사전, 사후에 걸쳐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 결과에 연습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손혜진, 2016), 추후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수행하는 상담자 혹은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같은 교육 내용을 연구자 외의 다른 강사들이 맡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변경된 설계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주석진, 2012).

### 3. 결론

이처럼 대학생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 동향 분석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종합, 분류하여 부족한 연구와 앞으로 연구할만한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를 선정할 때 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학위 논문 자료들은 누락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연구 중 국내 연구만 분석 대상 논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 및 향상하고자 어떠한 교육적, 상담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외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특정 변인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고 그 변인이 반드시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해당 변인을 측정하기 쉬운 경우, 방법의 편의성을 이유로 논문에서 많이 다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가 많은 대인관계 유능성 요인이 반드시 대인관계 유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 인과 관계의 효과 크기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고예주(2019). 국내 경험회피 연구동향: 주요 상담 및 심리학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1), 1-14.
- 구승희, 이영순(2011).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3(2), 17-37.
- 권석만(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구현주, 문혁준(2019).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224-239.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2005).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3), 1-13.
- 김상남, 김영미, 이소영(2018). 간호대학생의 자아 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및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61-72.
- 김소희, 권혜수(2019). 대학생의 경조성 성격과 경계선 성격에 따른 군집유형과 정서반응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 31-60.
- 김여진, 류석진, 조현주(2019). 우울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지향적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7), 57-83.
- 김용국, 박상혁(2010). 장애학생들의 통합체육 스트레스 조절기제로서의 강인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1), 21-32.
- 김은하(2013). 상담학에서 공감 연구에 대한 고찰: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5), 2851-2867.
- 김종임(2020).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286-295.
- 김진희(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 유형과 이성관계: 관계중독, 친밀감 두려움, 대인관계 유능성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911-929.
- 김창대, 김수임(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 김향선, 이영순(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8(3), 375-392.
- 김희진, 주은지(2018).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감사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3), 799-814.
- 민희정(2019).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이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과목 흥미도에 미치는

-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291-310.
- 박상규(2018). 교육기부를 통한 실천적 지식전달이 의사소통역량 및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2(3), 183-195.
- 박선영, 양수진(2019).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불공정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26(2), 107-130.
- 박영례, 장은희, 문 희(2019). 대학생의 신체상과 우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77-195.
- 박영신, 김의철(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원주 (2016). 성인불안정애착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5), 65-83.
- 박효진, 변은경, 양현주(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극복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627-636.
- 배미정, 조한익(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 배성만(2015).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6(3), 51-65.
- 변은경, 김미영(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융합, 6(2), 223-230.
- 서정연(2016).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석미정(2016). 자녀의 부모화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53-75.
- 설보경, 김희경(2018). 대학생의 거절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305-326.
- 손미라(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7(1), 74-84.
- 손솔, 서경현(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619-635.
- 손혜진(2016). 대학생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535-554.
- 송주석, 박기산, 김예인, 최희락, 신성만(2018).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537-557.
- 신수진, 황은희(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논단, 20(3), 156-163.
- 안도연, 이훈진(2019). 중용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유연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8(3), 275-286.
- 안선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양소정, 홍지영(2019).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조절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미술이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14), 761-781.

- 양지인, 이호현(2019). 대학생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유능성,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9(4), 139-161.
- 여미정, 김원일(2020).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215-234.
- 오지혜, 윤혜미(2017).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1-12.
- 유양경(2020).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539-560.
- 유지수, 김주연(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677-684.
- 유희정(2019). 대학생의 사회회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0(6), 1351-1373.
- 윤기원, 이동훈 (2017).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65-785
- 윤미혜, 지민경, 신민우(2020). 치위생(학)과 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 융합정보논문지, 10(6), 183-192.
- 윤부경, 배성훈(2020). 대학생의 낙관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대처유연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233-244.
- 윤아름, 장현아(2017).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171-192.
- 윤은영, 이지연(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3), 191-213.
- 윤진아, 송원영(2013). 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07-822.
- 이소영, 이경순(2019). 대학생이 지각한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5), 227-249.
- 이웅택, 이은경(2019).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성장적 반추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6(1), 29-56.
- 이지선, 정혜정(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99-121.
- 이창배, 전해성(2015). 대학생의 가족분화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465-483.
- 이현진, 박경미, 문혜경, 서가원(2019). 간호대학생의 공감지수와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613-624.
- 이현진, 주인석, 김명찬(2019). 완벽주의 연구동향 및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 분야 주요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43-368.
- 이혜은, 문학룡(2019). 치기공학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기공학회지, 41(2), 123-135.
- 임정아,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2016).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인지적유연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

- 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93-120.
- 장휘숙(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민(2017). 체육계열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5(4), 459-466.
- 정솔피, 선혜연(2017). 대학생의 정서·성격적 진로문제와 대인관계 유능성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313-332.
- 정은이(2011a). 개별성·관계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7(2), 97-120.
- 정은이(2011b).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7(2), 97-120.
- 정혜선, 금정화(2019).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2), 601-610.
- 제남주, 박미라, 화정석(2019). 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249-258.
- 제남주, 화정석, 박미라(2019). 임상실습 1년차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 314-323.
- 조운주, 박장희(2006). 대학생의 개체화 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3), 89-108.
- 조혜경(201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2), 475-483.
- 주석진(2012). 인간관계론 교과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수준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7), 79-99.
- 최광선(1995). 대인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비언어적 기술 척도 및 사회적 기술 척도의 작성. 사회과학, 7(1), 143-153
- 최영미, 김희화, 정성욱, 김리석(2018). 인공와우 이식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61(7), 341-348.
- 최유람, 이아라(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사후반추사고로 조절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93-113.
- 최은정, 김유현, 김청송(2020).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5), 1025-1040.
- 통계청(2020). 청소년 상담 내용 현황. Retrieved from [http://www.id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0](http://www.id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0)
- 하소영(2019). 상담학에서 공감 연구에 대한 고찰: 상담학 분야 주요학술지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2), 130-144.
-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2008).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24-25.
- 한나리, 이동귀(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허토실, 최수미(2017).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45-63.
- 홍주희(2020).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3(1), 94-108.
- 홍지선, 김수임. (2017). 국내 수치심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33-158.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Eisenberg, N. (2014).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LE: Emotion)*. NY: Psychology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Inc.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Garnefski, N., Kraij, V., & Spinhoven, P. (201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Laspley, D. K., & Edgerton, J.(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4), 484-493.
- Roberts, J. E., Kassel, J. D., & Gotlib, I. H. (1995).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2), 217-224.
- Ruter, M. A., & Conger, R. D.(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65-496.
- Spitzberg, B. H., & Spitzberg, Brian H., Cupach, William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Thorndike, E. L. (1920).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onthly*, 140, 227-235.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Trend of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Lee, JuYeon·Kim, Dongmin(Chung-Ang University)

Fifty-four studie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which had been published between the year of 2010 and 2022 in Korea, were examined to understand general trends in this field and t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Through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present descriptive data of the paper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promoting interpersonal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though the number of research regarding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was insufficient before 2010, the number began to increase after 2011. The major research stream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90.7%). Second, the studies indicate that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opics: internal personality, family and social relations, and combinational and other factors. Among the topics, internal personality(44.6%) proves the most influential. Third, the most papers suggested that follow-up research expand the subjects of research in order to capture the greater diversity and seek changes in research metho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search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limitations of current research and suggesting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s, Research trends, A variable related to interpersonal competences